

3

한국 전자책의 현황과 과제

김 재 윤

탐라대학교 출판미디어학과 교수

목차

1. 머리말
2. 종이 책과 전자책의 상관성
3. 한국 전자책 현황
4. 전자책의 과제
 4. 1 전자책의 문제
 4. 2 전자책의 과제
 4. 3 전자책 저작권의 문제
5. 맺음말

1. 머리말

‘비트(bit)와 네트워크’, ‘디지털’, ‘인터넷’ 등으로 이름지어지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고 있다. 디지털 문명은 수백년, 수천년에 걸쳐 이루어 놓은 기술의 변화를 수년 혹은 그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수백년 동안에 이룬 기술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은 출판에도 파급되어 종이 출판 중심의 기존 출판산업의 구조뿐만 아니라 독서의 개념, 출판·독서 문화의 모습까지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ff-line 형태의 CD-ROM, 인터넷 등을 활용한 on-line 형태의 책 등, 디지털 파일로 저장된 책의 내용을 독서 전용 단말기(혹은 문화 복합형 단말기)나 PC 등에서 읽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책의 등장은 출판산업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두보미디어는 1999년 말 소설책 10권 분량을 담을 수 있는 ‘로켓 e-Book’을 개발하여 반스앤노블에서 판매 중이고, 이외 ‘에브리북’, ‘밀레니엄 리더’, ‘소프트북’ 등 전자책이 시장에 나와 있다. 2000년 3월에는 스티븐 킹의 신작소설 라이딩 불릿(riding Bullet)이 e-Book으로 출판되어 순식간에 40만 카피가 판매되기도 하였다.

일본은 1999년에 140여개의 출판사, 정보통신업체 등이 참여하는 ‘전자서적 컨소시엄’(www.ebj.gr.jp)을 구성하여 e-Book 상용화 실험을 거쳐 실용화 단계에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민음사, 중앙M&B, 청림출판, 까치, 한국프뢰벨, 삼호출판사, 에릭양에이전시 등 8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에버북닷컴(www.everbook.com), 창작과비평사, 문학과지성사, 문학동네, 21세기북스, 삼성출판사, 이레, 솔출판사 등이 참여하는 와이즈북닷컴(www.wisebook.com), 현대문학사 등이 참여하는 바로북닷컴(www.barobook.com), 김영사의 김영닷컴(www.kimyong.com), 한길사, 현암사 등 출판인회의 소속 100여개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토피아(www.booktopia.com), 인터넷서점 예스24(yes24.com), 드림북(www.dreambook.co.kr), 영진닷컴(www.youngjin.com), 골드북(www.goldbook.com), 아이야닷컴(www.i-yah.com), 리얼북(www.realbook.co.kr) 등이 적극적으로 e-Book 개발·보급에 나서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다.

또한 이키온(www.echyon.com), 이북솔루션(www.ebooksolutions.com)을 비롯한 e-Book 관련 벤처기업과 전자통신업체 등이 독서전용단말기, 문화복합형단말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e-Book은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최대 단점인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지식·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지식·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또한 저자-출판사-서점-독자 등의 단계로 이어지는 유통의 단계가 대폭 축소되어 유통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각종 제작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정보의 활용도도 기존 종이책보다 훨씬 높을 수 있으며, 동영상, 소리 등 여러 기능이 담겨져 있어 정보전달 효과도 종이책보다 탁월하다 하겠다. 또한 신진 저작자의 진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저작충도

훨씬 두터워질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비해 단점도 적은 것이 아니다. 먼저 기존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읽기의 깊이를 충분히 줄 수 있는가 하는 점과 pc나 단말기 등 읽기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 저작권 침해가 용이해짐으로써 알차고 깊이 있는 저작물의 생산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독성의 문제와 인간의 소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디지털 도서에 대한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 출판산업의 미래는 과연 어떠한가? 기존 출판계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문명의 확산을 대체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출판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하는데 생긴다고 보여진다. 디지털 문명의 확산은 오히려 출판산업의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더라도 내용이 없으면 껍통에 불과하다. 즉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콘텐츠의 원천은 출판이다. 누가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가 디지털 시대의 중심이나 변두리나를 결정한다.

출판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더욱 발전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출판계는 문을 열고 디지털 문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종이책과 e-Book으로 대변되는 전자책은 끊임없이 상호보완을 통해 새로운 출판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전자책시장이 꾸준히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이에 상응하는 종이책의 시장도 존재할 것이다. 왜냐 하면 기존 종이책이 가지는 사유의 깊이를 전자책이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종이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히, 출판산업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다만 출판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 출판인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이 출판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2. 종이 책과 전자책의 상관성

책이 두루마리 형태를 벗어나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필사본 형태가 되었던 로마 후기부터 정보를 배열하는 과정이 달라졌다. 독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읽은 페이지를 쉽게 되짚어보고 서로 동떨어진 장들도 훑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기술적인 변화로 책을 서로 참조할 수 있게 되었고, 책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공간도 현저하게 줄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gerg)의 활판 인쇄술은 책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책값을 낮추었다. 마침내 활판인쇄술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다. 바로 인터넷(e-Book)이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인쇄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보다는 보완하고 확장시킨다. 이 두 가지 기술은 DNA의 이중 나선 구조처럼

하나로 얽혀서 21세기에 독서문화의 부흥을 불러올 것이다.¹⁾

종이 책과 e-Book은, 내용은 동일할 수 있으나 독자들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르다. 종이 책은 시간을 내서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기에 적합한 책이다. 반면, e-Book은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책이다. 종이 책과 달리 지식과 정보를 조작하고 검색하고 재배열하고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 책을 통한 독서는 보다 총체적으로 책에 접근하는 것으로, 정보 검색과는 거리가 멀다. e-Book은 귀납적이고 과학적인 독서에 적합하고, 종이 책은 연역적이고 고전적인 독서에 어울린다.²⁾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를 펼쳐들고 그 내용을 음미하고 책표지의 감촉을 느끼고, 오래된 종지와 잉크 냄새를 맡으며 활자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은 독서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체험들이다. 이는 종이 책을 통해 가능하다.

이 책의 한 부분이나 귀절은 기억하는데 그게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e-Book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e-Book은 종이 책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종이 책과 e-Book의 차이는 독서의 대상에 있다. 결국 e-Book이 결코 종이 책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이 책과 e-Book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서로 발전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다른 독자 대상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 디지털 책과 아날로그 책의 공존은 21세기의 독서 문화를 한층 높일 것이다.

3. 한국 전자책 현황

우리 나라의 2000년도 전자책 시장 규모는 10억 원 미만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는 ‘전자책 원년’이 갖는 맹아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납득할 만한 것이지만, 아직 시장이라 부르기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³⁾

국내에서는 2001년 6월 현재 누계 500여 출판사가 10여 개 전자책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며 약 14,000종의 전자책이 서비스되고 있다. 주요 업체들이 밝힌 콘텐츠 생산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7만 종 가까운 전자책이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서관, 학교, 관공서 등 BtoB 시장이 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전자책 콘텐츠 시장 규모도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표 참조).⁴⁾

전자책의 생산·유통 방식은 대개 출판사가 전자책 업체에 제작부터 서비스까지 위탁하는 형태가 주류이며, 일부는 저자가 전자책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형태이다. 또 콘텐츠의 대부분은 기존에

1) 폴 길스터(김정래), 디지털 리터러시, 서울:해냄, 1999, pp.44-45.

2) 폴 길스터, p.215.

3) 백원근, “전자책(e-Book)의 현황과 권리 처리 실태”,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점검,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2001. 6. p.8.

4) 백원근, pp.8~9.

〈표〉 주요 전자책 업체 사업 계획

(단위: 권, 억 원)

업체명		컨텐츠		매출 목표	
		2000년	2001년	2000년	2001년
와이즈북	www.wisebook.com	1,000	20,000	11.5	30
바로북닷컴	www.barobook.com	5,400	20,000	5	20
북토피아	www.booktopia.com	3,500	8,000	0.3	20
에버북닷컴	www.everbook.com	100	5,000	-	20
드림북	www.dreambook.co.kr	550	5,000	-	10
한국전자북	www.hiebook.com	380	4,000	-	1.5
미지로	www.mijiro.co.kr	560	3,000	-	-
노벨21	www.novel21.com	300	2,000	-	-
합 계		11,790	67,000	16.8	101.5

*자료: 백원근, 전자책의 현황과 권리 처리 실태

출판된 종이책을 HTML, XML, PDF, Flash, 자체 포맷 등 다양한 포맷의 전자책으로 변환한 것이지만, 전자책으로만 판매되거나 전자책을 먼저 발행했다가 후에 종이책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보통 전자책 가격대는 권당 700원(단편 소설 1편)부터 4천 원대까지(평균 가격은 3천 원 수준)로 종이책의 1/2~1/3 수준이다.⁵⁾

현재 우리 나라 전자책 서비스업체들의 주력 출판 장르는 특성화, 전문화되는 추세에 있다. 서비스하는 전자책 콘텐츠의 비중이 다르며, 이에 따라 분야별 판매량 비중도 업체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북토피아>와 <미지로>는 문학이 80% 내외이며, <노벨21>은 소설만을 취급한다. <바로북닷컴>은 주로 무협·환타지·SF 등 엔터테인먼트 장르가 90%에 육박하고, <드림북>은 컴퓨터·어학·비즈니스 분야가 60%, <와이즈북닷컴>은 아동 도서, <한국전자북>은 비즈니스 분야가 주류를 이룬다. <에버북닷컴>의 경우 현재는 환타지가 중심이지만, 점차 경제경영과 교육학습 분야를 주력으로 삼을 방침이다.⁶⁾

전자책은 기존 출판 패러다임의 지형도를 바꾸며 새로운 출판 시장의 가능성을 열어 나가는 데 그치지 않고, 콘텐츠 유료화에 부심하는 e-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고,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의 중추적인 정보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오락·투기·비생산적인 콘텐츠가 지배적인 현재의 인터넷 콘텐츠 환경의 혁신을 촉진시킴으로써 양질의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소비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이는 우리 나라가 진정한 정보 강국이 되는 길을 앞당기는 것으로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

5) 백원근, pp.9~10.

6) 백원근, p.11.

을 기울여야 할 분야라 할 것이다.⁷⁾

디지털 콘텐츠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책은 현재 시장 실험기의 상황이며, 이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 등 권리 처리도 합리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기술적 보안(DRM, DOI, Water-marking)의 문제와 산업 현장에서의 권리 처리도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⁸⁾

4. 전자책의 과제

4.1 전자책의 문제

1998년 10월 결성된 일본 전자서적컨소시엄에서 지난 3월말 펴낸 <전자서적 컨소시엄 성과 보고서(1998. 10. 2~2000. 3. 31)>에 의하면, e-Book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읽기 어렵고 피곤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⁹⁾ 아무리 선명한 모니터를 통해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눈의 피로를 피할 수는 없다. 눈도 피로하지 않고 향기와 감촉을 즐기며 읽을 수 있는 종이 책이 있는데, 충전시켜야 하고 들고 있기도 불편한 단말기로 누가 책을 읽으려 하겠는가?¹⁰⁾ e-Book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이다.

둘째, PC뷰어나 단말기를 이용한 독서에 대한 독자들의 저항감을 해소해야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본 전자서적 컨소시엄이 3개월간 휴대형 e-Book 단말기로 판매한 매출은 1,893권(91만엔)이며 인터넷을 경유해 PC뷰어로 판매한 매출은 332권(18만엔)에 불과했다. 이렇듯 저조한 판매 실적은 '단말기 독서'에 대한 저항감, 복잡한 구입 절차 및 긴 다운로드 시간, 단말기의 무거운 중량 및 짧은 건전지 수명 등에서 기인했다. 실제로 판매된 콘텐츠의 분야별 비율을 살펴보면 소설(34%), 만화(27%), 수필·평론(20%) 순이었다. '베스트셀러 10'은 거의가 만화로 채워져 있다.¹¹⁾

셋째, 영상(전파) 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e-Book이 사람의 대뇌 반구의 우측 뇌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반해 좌측 뇌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¹²⁾ 독서를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어린이들이 독서를 자주 하는 어린이들보다 상상력 발달이 뒤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¹³⁾ 즉, 영상매체는 사람의 직관과 느낌을 강화하는 반면에 논리와 분석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7) 백원근, p.7.

8) 백원근, p.7.

9) 백원근, "일본 출판계, e-북 상용화 실험 마쳤다.", <출판저널> 통권 제278호, 한국출판금고, 2000.4.20, p.42.

10) 폴 길스타, pp.222-223.

11) 백원근, p.43.

12) 이정춘, 출판 사회학 세미나, 서울:중앙출판 문화원, 1998, p.354.

13) 이정춘, pp.355-356.

읽기와 쓰기, 셈하기가 퇴보될 수도 있다.¹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상에 치우치고 문자를 배제한 e-Book은 자칫 독자의 상상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넷째, 다매체 경쟁에서 종이 책보다 더 출판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종이 책의 경우 그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e-Book은 영화, 음반, 신문, TV, 인터넷, 쇼핑 등 정보 복합형 혹은 문화 복합형 단말기를 통해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독서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저작권이 넓어지는 데 비해 전문 저작가와 연구자의 감소 문제와 저작권 보호 문제, 독서토론문화의 상실, 오히려 비판 정신이 감소하는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겠다.

4. 2 전자책의 과제

e-Book이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e-Book에도 ‘눈부신 상상력’¹⁵⁾이 있어야 한다. 즉, e-Book에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키우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상상력이 없는 책은 껍데기와 같다.¹⁶⁾

둘째, e-Book은 반드시 독자가 중심 축이 되어 생산, 재생산되어야 한다. 기획, 생산, 편집, 유통 전 과정이 독자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독자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독자가 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e-Book과 관련한 표준화, 저작권을 비롯 기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독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독자가 이용하기 편한 e-Book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e-Book은 독자의 반응이 신속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이 책보다 더 저자나 출판사보다 독자의 관점에 서야 한다. 독자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e-Book은 기술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으나 시장에서는 실패할 것이다. 독자가 e-Book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종이 책을 새롭게 변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종이 책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종이 책과 e-Book 모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시대 독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넷째, 편집의 요소가 적절하게 담겨 있어야 한다. e-Book의 장점은 조합의 이점다움에 있다. 원석을 보석으로 가공하는 것은 편집이다. 특히 e-Book환경에 맞는 편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통의 다양성이다. e-Book은 유통 역시 디지털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독자가 닿을 수 있는 어디서든지 e-Book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넥타이를 구매하

14) 이정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독서와 도서관의 역할",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관 도서 구입비 증액방안 모색, 2000.6.23, p.5.

15) 한기호, 디지털과 종이 책의 행복한 만남, 서울:창해, p.112.

16) 한기호, p.126.

고자 쇼핑몰에 들어갔다면 쇼핑몰에다 넥타이 관련 e-Book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의 독점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여섯째, e-Book과 단말기를 독자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가격이 e-Book의 확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곱째, 독자층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e-Book의 독자는 새로운 독자층인가 아니면 기존의 독자층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획부터 달라질 것이다.

여덟째,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알찬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역시 내용이 성패를 좌우한다. 양질의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홉째,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정보의 빈부격차, 지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양극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독자들의 능동적인 두뇌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e-Book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4. 3 전자책 저작권의 문제

인터넷 등 정보 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더욱 용이해졌고 전자책의 생산이 점차 활성화되는 등 전자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6134호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나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항은 이익 당사자간에 참여한 대립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개정에서 전자책 관련 조항으로는 인터넷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 신설을 들 수 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전송의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여, 앞으로 출판사가 e-Book 등 전자책을 제작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복제의 개념에 디지털 복제를 포함(제 2조 제 14항)한 점과 출판계와 저작권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던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전송 조항 등이 전자책 관련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법 개정은 전자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개정이라기보다는 졸속적인 법개정에 그쳤다는 평가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후 전자책 환경에 걸맞는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도서관에서의 디지털복제와 상호 전송 허용에 대한 출판계와 저작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12일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입법 예고하였으며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제 28조의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편집물 제작자에 대해서는 이법 시행 당시 편집물을 제작하거나 유지관리한 지 5년이 초과하지 않은 제작자에 대해서도 보호해 주는 소급 보호 원칙을 부칙에다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의 전자책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전송 규정 정비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도 도서관 내에서 열람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복제 및 다른 도서관으로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 28조를 대폭 개정하여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자, 그 밖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도서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은 저작권, 출판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그동안 제 28조가 국제 협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출판권을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인 조항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출판계와 저작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이 개정은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전향적인 조치라 하겠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서 저작권, 출판권 등은 보호하기 위하여 도서관 등에서 ① 기술적 조치로 복제 방지 장치의 설치, 암호화 조치, 이용 및 내용 변경 확인 조치, 판매용 전자 기록 매체의 이용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② 저작권 출판권 등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③ 경고 표지를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예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어떻게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특히, 제 28조 2항과 4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존 종이책 구입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도서관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도서관과 독자가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편집물 제작자(DB 제작자) 보호 규정 신설

디지털 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콘텐츠가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과 기타 자료의 집합물(데이터베이스 포함)인 편집물의 제작 또는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편집물 제작자에게 편집물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 권리는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여 그 다음 해부터 5년간 보호된다.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신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복제·전송을 지체 없이 중단한 경우와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시간적·재정적인 이유로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 관리 정보 보호 규정 신설

저작권 등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와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를 하거나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변경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전송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 신설

① 편집물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98조 제4항), ② 영리를 목적을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와 그 주요 부품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전송한 자(98조 제5항),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변경한 자,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변경된 사실을 알고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한 자(98조 제6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되는 저작권법이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서관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도서관 예산의 확충이 없이는 제 28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둘째,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이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출판권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권리와 이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의 준거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 즉,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결코 뒤따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저작권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저작권 전담 부서의 조직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전자책은 저작권법에 용어의 정의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 역시 미흡하다.

전자책의 진전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법개정이 요구된다. 전자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올바른 자리매김될 때 전자책도 올바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5. 맺음말

e-Book은 사유와 인식의 방법적 변화를 유도할 것이고, 그래서 기능적이며 효과적인 대신 비판적이고 인문적이지는 못할 것이고 지식과 정보의 획득은 무척 빨라지지만 정서적·사색적 반응을 얻어내는 어려울 것이다.¹⁷⁾ 따라서, e-Book은 종이 책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장점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돌이나 대쪽에 기록함으로써 시작된 몇 번의 밀레니엄 동안 지속된 문자 문화가 적어도 새로운 세기를 맞으며 몇 세기 동안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던 도서 문화가, 급격한 변화의 단계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문자에서 영상으로 종이 책에서 전자책으로, 실물에서 사이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며 인쇄 문화에서 컴퓨터 문화로, 도서 문화에서 인터넷으로 독자에서 네티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글자에서 비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인문주의에서 기능주의로 사유에서 정보로 지식에서 뉴스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¹⁸⁾

머레이 레이버(Murray Laver)의 말에 의하면 '3-R(읽기, 쓰기, 셈하기, reading, writing, arithmetic)'은 급속하게 '3-P', 즉 누름단추, 사진, 프로그램(push-button, picture, program)으로 바뀔 것이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기억력과 상상력의 확장이다.²⁰⁾ 이러한 책의 역할은 디지털 시대에도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독서의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모습이 바뀔 따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책의 위상과 역할이 올바로 자리매김될 때 전자책은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이다.

17) 김병익, 무서운 멋진 신세계-새로운 세기의 풍경들, 서울:문학과 지성사, 1999, p.52.

18) 김병익, p.51.

19) 앨버틴 가우어(강동일), 문자의 역사, 서울:새날, 1995, p.325.

20)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책], <출판저널> 통권 제 110호, 한국출판금고, 1992.7.20. p.10 재인용.